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손애리**

이내영***

| 목 차 |

I. 서론	3. 경제적 이해관계와 탈북자에 대한 태도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 검토	III. 연구방법
II.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세 가지 이론적 시각	IV. 경험적 분석 결과
1. 국가 정체성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1.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기술적 분석과 양변인 분석
2. 다문화수용성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2. 회귀모형을 통한 탈북자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V. 결론

| 논문요약 |

본고는 2010년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인이 탈북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인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자에 대한 수용 태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 정체성·다문화 수용성·경제적 이해관계라는 3 가지 이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들을 제시하고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작았다. 남성은 탈북

* 본 논문은 2011년도 고려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자 수용태도 모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탈북자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둘째, 국가정체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민됨의 자격조건과 관련해 민족적 요인은 탈북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시민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 소속감과 자긍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민족 소속감과 자긍심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다문화수용성 변인 중에서 이주자에 대한 권리는 탈북자 태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이해관계 변인은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이 친근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 주제어: 탈북자, 국가 정체성, 다문화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 한국인의 태도

I. 서론

1. 문제제기

2012년 2월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려는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였다. 여성 국회의원의 단식농성도 더해져 일련의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는 국내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으로 중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조용한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탈북자 북송 반대시위는 국내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을 떠나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는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3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아와 인권유린의 참혹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ggard and Noland 2006). 두만강 등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건 탈출이며, 여기에는 이들을 돕는 한국 NGO뿐 아니라 브로커 집단까지 가세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외국공관 진입과

같은 ‘기획망명’이 등장하며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상당수는 중국 등지를 수년간 떠돌다가 동남아 루트를 통해 입국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신화 2010, 140).

르뽀 기사나 다큐, 영화 등은 이들의 탈북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런 고난에 찬 역경은 한국이라는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와 수 개 월의 적응 교육을 거쳐 가족관계부에 등록하면, 정착금과 주택지원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을, 정착 한국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환대를 받고 있을까? 혹시 ‘초대 받지 못한 손님’과 같이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2000년대 들어와 탈북자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의 수가 2000년대 들어서 연간 천명을 넘어섰고, 2006년부터는 연간 2천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총 탈북자 수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자료에 따르면 2만 4천 명을 넘어섰다. 과거 군인과 고급외교관을 중심으로 극소수의 사람이 월남하여 귀순용사의 대우를 받던 시대에 비하면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구적 구성도 가족 연쇄이주의 증가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의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탈북자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세금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윤인진 2009, 25).

둘째, 탈북자와 직접 연관되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2005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북한 동포에 친밀감을 나타냈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55.2%만이 친밀감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평소 생각은 2010년 조사에서 ‘우리’와 ‘이웃’을 응답한 비율이 2005년에 비해 각각 3.3%와 9.9%씩 줄어들고 ‘적’과 ‘남’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6.9%와 5.9%씩 높아졌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005년 7.9%에서 2010년 19.3%로 10%이상 증가했다(이내영 2011, 38; 48-49).

셋째, 탈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전쟁과 분단의 경험으로부터 두 세대가 지났고,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북한과 북한동포에 대해 민족적 차원을 떠나서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동질적인 사회로 인식되던 한국사회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노동이 주자와 결혼이주자가 증가하면서 다민족·다문화 국가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황정미 2011, 202-203).

이처럼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고, 북한과 통일문제와 같은 탈북자를 둘러싼 환경이 2000년대 들어와 계속 급변하면서, 한국인이 탈북자를 보는 시각 또한 변화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늘어나는 탈북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통합이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탈북자에 대해 갖는 한국인의 태도는 정부의 정책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는 현재 한국인들이 탈북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2010년도에 실시된 여론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기존의 탈북자 연구는 주로 탈북자의 사회적 적응 실태를 살펴보거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윤인진 2009, 43). 탈북자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다른 탈북자 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특정 집단이 탈북자에 대해 갖는 태도 및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대학생과 고등학생, 신변보호담당관, 대안학교교사 등 특정 집단이 탈북자에 대해 갖는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탈북자와의 접촉 유무와 관계를 맺는 유형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탈북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경우 신변보호담당관 등 탈북자와 감시-피감시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전우택 외 2000), 대안학교교사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

는 사람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양계민/정진경, 2005). 탈북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연민의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함께 나타냈다(김영수 1998; 정기선 1998).

최근에는 탈북자를 다른 이주민 집단과 비교하며 친밀감 및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검토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진 외 2010; 정기선/박성일 2011). 다른 한편 탈북자를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동성애자 등의 소수자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다(김상학 2002). 권수현(2011) 또한 탈북자를 이민자와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하고 다문화주의 이론을 참조하여 탈북자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를 연구했다.

이처럼 기존의 탈북자 연구는 탈북자의 생활실태와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고,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연구도 특정 집단을 다루거나 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이 탈북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탈북자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이주자나 동포와는 구별되는 탈북자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인들이 탈북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감 또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탈북자 수용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나아가 이런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여론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세 가지 이론적 시각

탈북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탈북자는 북한체제를 거부하거나 식량난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정치적 망명자이자 경제적 난민이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탈북자는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진 동포이지만, 남한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갖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변인이자 문화적 소수자이기도 하다(Chung 2009, 3-4). 이와 같은 다양한 범주 중에 모든 탈북자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출신의 '동포'라는 측면이다. 이런 속성들이 탈북자를 다른 유사한 집단들과 차별화시키고 있다. 즉 탈북자는 한국에 온 이주자이지만 한민족 동포라는 점에서 동남아 등지에서 온 이주자와 다르며, 한민족 동포이지만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서 미국·일본·중국 동포와 똑같이 다루어질 수 없다. 또한 북한 출신이지만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남한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보통의 북한사람과 다르다.

동시에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출신의 '동포'라는 탈북자들의 복합적 지위는 한국인이 탈북자에 대해 갖는 복잡하고 이중적인(ambivalent) 심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속성 중에서 어느 것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한국인이 탈북자를 인식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아래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다문화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세 가지 이론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각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가 정체성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국가 정체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및 잠재적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탈북자를 '우리'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전히 '그들'로 둘 것인지, 혹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다. 특히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출신의 한민족 동포와 한국인간의 경계를 문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가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국가 정체성은 일관되고 합의된 정의를 찾기 힘들지만, 광범위하게는 사회 정체성의 한 형태로 특정 네이션(nation)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한다(Wiggins 1994). 이것은 자신이 속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소속감, 충성, 거리감, 자긍심, 애착 등 주로 감정적 차원을 통해 분석된다(Theiss-Morse 2009, 3-5).

많은 연구들이 앤소니 스미스의 연구에 근거해 국가 정체성을 시민적(civil) 요인과 민족적(ethnic) 요인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왔다. 이들 연구는 시민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이주자에게 긍정적이고 관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Smith 1991; Hjerm 1998; Heath 2005; 장승진 2010). 탈북자에 대한 태도 또한 시민적 요인을 강조하는지 민족적 요인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탈북자는 일반 이주자와 달리 혈통이라는 민족적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스미스의 설명은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스미스가 제시한 대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긍심 등의 심리적 애착을 함께 고려해 국가 정체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정체성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보다 확대된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단 일민족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1민족 1국가를 이상적으로 여겨온 한국인들은 민족정체성(ethno-national identity)과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설동훈 2006). 그러나 일본 식민지 시기 국권상실을 경험하면서 민족정체성이 국가정체성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이후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간격은

별어졌다. 즉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때로는 일치하지만 많은 경우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비교 속에서 검토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구분은 탈북자 인식에 있어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 탈북자는 민족적으로 동질적이지만, 국가정체성에서는 배타적인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적 소속감이나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탈북자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해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대한민국 국가 소속감이나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탈북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 다문화수용성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 곧 다문화수용성을 들 수 있다. 탈북자는 같은 동포이지만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인이 적대시 혹은 위협시 해온 북한에서 살아 왔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체제이며, 북한 사람들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체제의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자기와 다른 체제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를 말한다(윤인진 외 2010; 윤상우/김상돈 2010). 탈북자를 한민족 동포로만 간주한다면 다문화수용성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탈북자에 대해 민족적 색채를 걷어내고 북한이라는 다른 체제와 문화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온 이주자라는 속성이 부각된다면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인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북한 동포와 북한에서 온 이주자라는 두 가지 속성 중 어느 것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민족 동포라는 차원이 꼭 우호적 감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태도는 적, 남, 이웃, 형제, 우리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남과 적에 대한 태도가 강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사할린 동포와 달리 북한 동포만을 특별우대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탈북자를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탈북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줄인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이주자와 결혼이주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 경제적 이해관계와 탈북자에 대한 태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들 수 있다. 이주자에 대한 자국민의 태도를 연구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탈북자는 일반 이주자를 위한 사회통합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정착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탈북자를 한국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탈북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경쟁 가설에 따르면, 개별 국민들의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이 있다. 국내 비숙련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비숙련직의 주변부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이주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eve and Slaughter 2001).

비숙련직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세금과 관련해 이주자들과 경제적 이해관계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파치니와 마이다는 이주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지가 일반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Facchini and Mayda 2006), 탈북자의 경우 이는 더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2012년 12

월 현재 1인 세대 기준 약 1천9백만원의 주거·정착금 외에 취업과 교육 지원금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통일부 홈페이지), 탈북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 조만간 재원마련 방안과 다른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권수현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탈북자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비경제활동 집단,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탈북자에 대한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수현 2011, 143-144). 경제적 요인이 서구와 달리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과 경쟁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탈북자의 자격이나 경력 인정과 같은 실질적 문제와 결부되었을 때에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김영수 1998).

탈북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태도에 반영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나 조세부담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경제상황에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주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Chander and Tasi 2010). 한편 씨트린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영향을 받으며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Citrin et al. 1997).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자료는 2010년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2010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추출은 2010년 6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을 한 후 무작위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1대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종속변수인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현재는 북한에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량으로 발생할 잠재적 탈북자에 대한 수용태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탈북자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를 질문하고, “완전히 남이다”, “남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이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잠재적 탈북자에 대한 수용태도는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남한 정부가 취할 대응책을 측정하였다. “같은 동포이므로 남한에 살고자 하는 난민은 모두 받아야 한다”,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운데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앞에서 논의한 국가 정체성, 다문화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세 가지 이론적 시각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로는 국민됨의 자격요건, 소속감, 자긍심을 포함하였다. 먼저 국민됨의 자격요건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7개 문항으로 제시하고,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출생지·장기거주·혈통 3가지를 민족적 요인으로, 국적·한국어 사용·정치제도와 법 준수·역사이해 및 전통과 관습 준수 4가지를 시민적 요인으로 삼아 구성하였다.¹⁾ 각 요인에 대한 항목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민족적 요인이 0.726, 시민적 요인이 0.784로 바람직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소속감과 자긍심은 국가와 민족을 분리하여 변수화하였다. 소속감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에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국가자긍심은 “나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라는 진술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민족의 경우에는 한

1) 국적과 언어는 연구에 따라 시민적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하고 민족적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Hjerm(1998)은 1995년도 ISSP 자료를 분석하면서 국적·언어·정치제도와 법 존중·소속감을 시민적 요인으로, 출생지와 장기거주를 민족적 요인으로 분석했지만, Jones and Smith(2001)는 국적을 민족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내에서 정기선과 이선미(2011)는 국적을 민족적 요인으로 간주한 반면, 황정미 외(20007)와 윤인진 외(2010)는 국적을 시민적 요인에 포함시켰다.

민족 역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부터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와 이주자의 권리 옹호라는 두 변수를 제시하였다. 전자는 “어느 국가든 인종, 종교, 문화가 다양해지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와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라는 진술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응답하게 했다. 후자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나 사회보장에서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5점 척도에서 응답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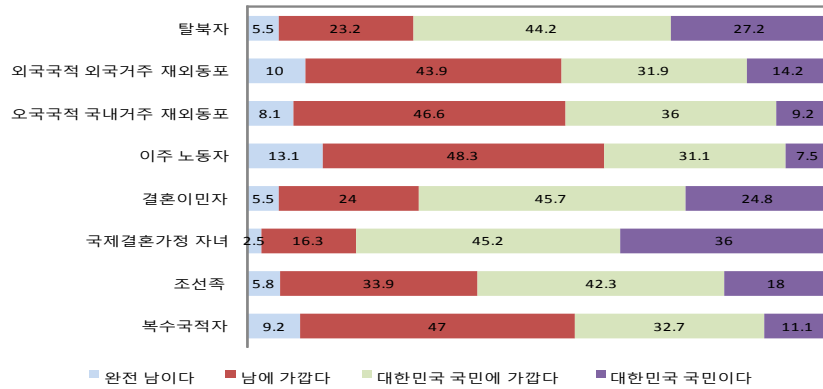
경제적 변인은 가구별 월소득, 주관적 계층,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으로 구성했다. 소득은 100만 원 이하부터 1001만 원 이상까지를 10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주관적 계층은 최상위, 중상위, 중산, 중하위, 하위 5개 계층으로 나누었다.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은 “크게 좋아질 것이다”부터 “크게 나빠질 것이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경험적 분석 결과

1.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기술적(descriptive) 분석과 양변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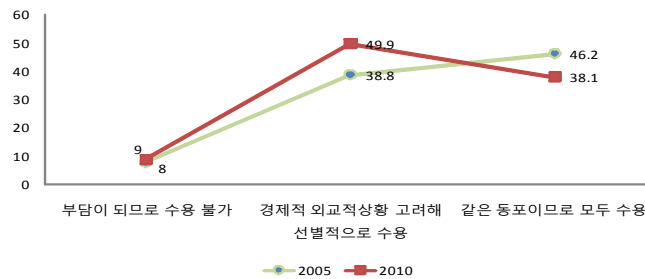
2010년 ARI-EAI조사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네이션의 경계선상에 있는 다른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질문하였다. 탈북자는 국제결혼자녀 다음으로 높은 친근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문화에 익숙한 국제결혼자녀를 같은 민족이지만 60여 년 동안 다른 체제에 살아왔던 탈북자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 가깝게 느낀다는 사실은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친근감을 고려하는데 문화적인 것이 중시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표면적으로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상징하는 탈북자와 다문화주의를 상징하는 결혼이민자의 친근감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림1>국내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친근감(%)

만약의 사태로 탈북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정부의 수용정책에 대한 질문은 2005년도 조사에서도 똑같이 질문되었다. <그림2>에서 보듯이, 같은 동포이므로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년 전에 비해 약 8% 정도 줄어들었고, 대신 선별적 수용이 11%가량 늘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는 또 다른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지난 5년간 북한 및 북한 동포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으며,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2>탈북자 수용태도의 변화: 2005년과 2010년

다음 <표 1>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국민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친근감과 수용 태도 모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 다수가 탈북자를 ‘남’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게 간주하고 있으며, 대량 탈북자에 대해서도 선별적 수용보다는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선택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약간 높고, 대량 탈북자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별로 비교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40대가 탈북자 친근감이 다른 세대보다 가장 높았지만, 탈북자 수용에 있어서는 가장 부정적이었던 점이 나타났다. 탈북자 친근감과 탈북자 수용태도가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재학 이상의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념상으로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탈북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중도성향의 사람이 친근감과 수용태도 모두에서 부정적이었다.

<표1>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탈북자에 대한 태도

		N	탈북자 친근감 (4점)	탈북자 수용 (3점)
	전체	1,019	2.93	2.30
성별	남자	504	2.96	2.33
	여자	515	2.9	2.27
F값(유의도)			1.178(0.278)	2.531(0.112)
연령	20대	199	2.84	2.28
	30대	218	2.89	2.32
	40대	228	3.03	2.27
	50대	176	2.94	2.32
	60대이상	198	2.94	2.31
F값(유의도)			1.485(0.204)	0.310(0.871)
교육수준	중졸이하	166	2.94	2.31
	고졸	412	2.94	2.34
	대학재학이상	438	2.91	2.26
F값			0.161(0.851)	1.671(0.189)
이념	진보(0~4)	279	3.03	2.31
	중도(5)	434	2.87	2.29
	보수(6~10)	306	2.93	2.31
F값(유의도)			2.747(0.065)	0.039(0.962)

다음 <표 2>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태도 변수들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우선 국민의 조건으로 민족적 요인을 중시할수록 탈북자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탈북자 수용정책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적 요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민족적 요인을 중시할수록 이주자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민족적 요인이 중시될수록 탈북자에 더 우호적이라는 사실은 탈북자를 이주자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같은 혈통을 가진 동포라는 측면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국가 정체성의 시민적 요인이 이주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탈북자에게도 적용되었다.

민족소속감과 국가소속감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높을수록 탈북자 친근감과 탈북자 수용태도는 낮았다. 반면 민족 소속감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국가 자긍심 또한 탈북자 친근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민족 자긍심의 경우는 한민족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탈북자를 다소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국가 정체성에 따른 탈북자 태도의 평균비교

국가 정체성	문항	응답분류	탈북자 친근감 (4점)	탈북자 수용 (3점)	
	국가 정체성	민족적 국민 기준 ²⁾	중요하지 않다	2.83	2.25
그저 그렇다			2.93	2.27	
중요하다			3	2.38	
F값(유의도)			2.823(0.060)	3.45(0.032)	
시민적 국민 기준		중요하지 않다	2.76	2.18	
		그저 그렇다	2.96	2.29	
		중요하다	3	2.43	
F값(유의도)			5.485(0.004)	9.437(0.000)	
국가 소속감			전혀 가깝지 않다	3.31	2.51
			별로 가깝지 않다	2.9	2.39
	대체로 가깝다		2.96	2.28	
	매우 가깝다		2.88	2.27	
F값(유의도)		3.052(0.028)	2.355(0.071)		
민족 소속감		전혀 가깝지 않다	2.9	2.36	
		별로 가깝지 않다	2.87	2.29	

		대체로 가깝다	2.92	2.28
		매우 가깝다	3.01	2.33
	F값(유의도)		1.154(0.326)	0.547(0.650)
국가 자긍심		자랑스럽지 않다	3.2	2.34
		그저 그렇다	2.86	2.25
		자랑스럽다	2.92	2.31
	F값(유의도)		4.309(0.014)	1.029(0.358)
민족 역사 자긍심		자랑스럽지 않다	2.94	2.38
		그저 그렇다	2.8	2.26
		자랑스럽다	3	2.32
	F값(유의도)		6.200(0.002)	1.343(0.261)

<표 3>은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와 탈북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문화다양성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주자의 권리보장을 중시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친근하게 느끼고, 대량 탈북시 수용에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문화다양성의 인정은 탈북자의 민족적 측면과 대립될 수 있지만, 이주자의 권리보장은 탈북자를 포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3>다문화수용성에 따른 탈북자 태도의 평균비교

	문항	응답분류	탈북자 친근감 (4점)	탈북자 수용 (3점)	
다문화 수용성	문화다양성	그렇지 않다	3	2.34	
		그저 그렇다	2.94	2.3	
		그렇다	2.88	2.29	
		F값(유의도)		0.887(0.412)	0.219(0.803)
	이주자권리	그렇지 않다	2.76	2.07	
		그저 그렇다	2.86	2.26	
		그렇다	3.15	2.48	
	F값(유의도)		15.616(0.000)	23.240(0.000)	

마지막으로 다음 <표 4>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구 월소득에 따른 탈북자 친근감은 고

2) 민족적 국민, 시민적 국민, 국가자긍심, 한민족 역사자긍심은 설문지 문항과 아래의 회귀분석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표에서는 평균비교의 가독성을 위해 3점 척도로 조정하였다.

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이 각각 가장 높은 친근감과 가장 낮은 친근감을 보여주었다. 반면 탈북자 수용태도는 저소득층에서는 높게, 중간소득과 고소득층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탈북자 수용은 친근감과 달리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세금 부담층에서 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4>가구 월소득에 따른 탈북자 태도의 평균비교

	문항	응답분류	탈북자 친근감 (4점)	탈북자 수용 (3점)
경제적 이해관계	가구 월소득	100이하	2.84	2.38
		101-300	3.02	2.36
		301-500	2.88	2.23
		501-700	2.87	2.35
		701이상	3.16	2.23
	F값(유의도)		2.162(0.071)	2.673(0.031)

2. 회귀모형을 통한 탈북자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앞 절에서 기술적 분석과 양변인 통계분석을 통해 국가 정체성 관련 변수들, 다문화 수용성 변수들,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각각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인구·사회 변수들을 포함하여 국가 정체성 관련 변수들, 다문화 수용성 변수들, 경제적 이해관계 변수들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앞서 논의한 대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자 수용태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회귀모형을 만들었다. 먼저 <표 5>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들, 국가 정체성 관련 변수들, 다문화 수용성 변수들, 경제적 이해관계 변수들을 포함한 다섯 가지의 회귀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을 제외하고는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탈북자 친근감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정

체성 관련 변수들 가운데서는 국민의 자격요건으로 시민적 요인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가 탈북자 친근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족적 요인을 중요시 하는 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탈북자는 단순한 이주자가 아니라 같은 동포라는 점에서 민족적 요인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60여 년 다른 체제에 살면서 같은 조상의 혈통을 갖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탈북자와 정체성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시민적 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인이 탈북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한민족 동포로서의 시각보다 한국에 온 이주자로 바라볼 때 친근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소속감이 탈북자 친근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결과는 국가 소속감이 강할수록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남으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강한 소속감은 외부자에 대해 경계와 거리감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족 소속감은 예상대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통계적으로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긍심의 경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민족 역사에 대한 자긍심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은 탈북자 태도에 부정적으로인 영향을,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 변수의 경우, 문화 다양성과 이주자 권리 옹호 두 변수 모두 탈북자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것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거나, 외국인 이주자가 우리나라 문화를 풍부하게 할 것이라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탈북자 친근감에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결과이다. 거칠게 말하면 문화다양성의 옹호는 민족적인 범주에 비판적인 경향이 강할 수 있고, 이것이 탈북자 친근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자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옹호할수록 탈북자 친근감도 매우 높는데, 이는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족적 차원과

무관한 인권이라는 보편적 차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변인은 전체적으로 탈북자 친근감에 상당히 제한적 영향력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소득, 계층, 가정경제 전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년 후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록 탈북자 친근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경제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주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5> 탈북자 친근감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남=0)	-0.038 (0.054)	-0.043 (0.054)	-0.049 (0.054)	-0.039 (0.055)	-0.054* (0.054)
	연령	0.051 (0.023)	0.032 (0.023)	0.033 (0.023)	0.051 (0.024)	0.017 (0.023)
	교육수준	-0.024 (0.027)	-0.049 (0.027)	-0.046 (0.027)	-0.008 (0.028)	-0.054 (0.027)
	이념성향	-0.055 (0.016)	-0.053 (0.016)	-0.039 (0.016)	-0.060 (0.016)	-0.041 (0.016)
국가 정체성	민족적 국민기준		-0.078 (0.026)			-0.046 (0.026)
	시민적 국민기준		0.138*** (0.021)			0.090* (0.021)
	국가 소속감		-0.111*** (0.039)			-0.098*** (0.038)
	민족 소속감		0.064* (0.035)			0.029 (0.035)
	국가 자긍심		-0.069* (0.035)			-0.096*** (0.035)
	민족 자긍심		0.124*** (0.040)			0.130*** (0.040)
다문화 수용성	문화 다양성			-0.055* (0.017)		-0.069** (0.017)
	이주자 권리			0.182*** (0.020)		0.179*** (0.021)
경제적 이해관	가구별 월 소득				-0.034 (0.002)	-0.045 (0.002)

계	주관적 계층				0.005 (0.033)	0.008 (0.033)
	가정경제 전망				-0.017 (0.057)	-0.023 (0.055)
	국가경제전망				0.112** (0.056)	0.115** (0.055)
	R ² 값	0.006	0.040	0.039	0.017	0.080

*p<0.1, **p<0.05, ***p<0.01, () 안의 값은 표준오차

<표 6>은 탈북자 수용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들, 국가 정체성 관련 변수들, 다문화 수용성 변수들, 경제적 이해관계 변수들을 포함한 다섯 가지의 회귀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성별과 학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앞의 탈북자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탈북자 대량수용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탈북자의 대량수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정체성 변수에서는 국민의 조건으로 시민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대량탈북자 수용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족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했다. 국가소속감은 탈북자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대량탈북자 수용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오랫동안 고착되면서 북한 사람과 잠재적 탈북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으며, 강한 국가소속감은 이것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족 소속감 및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대량 탈북자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문화 수용성 변수의 효과를 보면, 이주민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대량탈북자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대량 탈북자는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아니며 따라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지만, 인권과 시민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난민’ 상태의 잠재적 탈북자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는 대량탈북자 수용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이해관계 관련 변수들 가운데는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탈북자 수용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탈북자수용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남=0)	-0.063* (0.041)	-0.064** (0.041)	-0.067** (0.040)	-0.061* (0.041)	-0.066** (0.040)
	연령	-0.022 (0.018)	-0.041 (0.018)	-0.027 (0.017)	-0.019 (0.018)	-0.042 (0.018)
	교육수준	-0.083** (0.020)	-0.107*** (0.020)	-0.117*** (0.020)	-0.084** (0.021)	-0.121*** (0.021)
	이념성향	-0.029 (0.012)	-0.044 (0.012)	-0.009 (0.012)	-0.021 (0.012)	-0.014 (0.012)
국가 정체성	민족적 국민기준		-0.094* (0.019)			-0.042 (0.020)
	시민적 국민기준		0.214*** (0.016)			0.149*** (0.016)
	국가 소속감		-0.101*** (0.029)			-0.090** (0.029)
	민족 소속감		0.010 (0.027)			-0.017 (0.027)
	국가 자긍심		0.011 (0.027)			-0.010 (0.027)
	민족 자긍심		0.038 (0.030)			0.034 (0.030)
다문화 수용성	문화 다양성			-0.024 (0.012)		-0.042 (0.013)
	이주자 권리			0.248*** (0.015)		0.236*** (0.016)
경제적 이해관 계	가구별 월소득				0.014 (0.002)	-0.009 (0.002)
	주관적계층				-0.025 (0.025)	-0.016 (0.025)
	가정경제 전망				0.004 (0.043)	0.012 (0.042)
	국가경제 전망				-0.026 (0.042)	-0.054 (0.042)
R ² 값		0.007	0.042	0.068	0.008	0.092

*p<0.1, **p<0.05, ***p<0.01, () 안의 값은 표준오차

V. 결론

본고의 목적은 2010년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인이 탈북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인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자에 대한 수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적 변수를 통제 변수로 포함하고, 국가 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3 가지 이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들을 제시하고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작았다. 남성이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자 수용 모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력은 탈북자 수용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고학력일수록 탈북자에게 부정적이었다. 둘째, 국가정체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민됨의 자격조건과 관련해 민족적 요인은 탈북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시민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소속감·자긍심은 국가에 대한 것인지 민족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국가 소속감과 자긍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민족 소속감과 자긍심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다문화수용성 변인 중에서 이주자에 대한 권리는 탈북자 태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이해관계 변인은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이 친근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먼저 연령과 관련해서 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세대별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전쟁에 가장 가까운 세대인 60대 이상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높은 연령대=보수적=북한에 비판적=탈북자에 비우호적”이라는 관행적 인식이

맞지 않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분단으로부터 두 세대가 지난 지금의 20대에게 북한에서 한국을 찾아온 탈북자는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지며, 이는 앞으로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없으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20대와 10대 청년세대에게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높히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둘째, 이념성향에서는 예상대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탈북자에 대해 가장 우호적이었으나, 그렇다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 결과는 탈북자 문제를 이념적인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됨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출생지, 장기거주, 혈통 등의 민족적 요인은 친근감과 대량수용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국적, 한국어, 제도와 법 준수, 역사이해 및 전통과 관습 준수와 같은 시민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탈북자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다수의 한국인들은 더 이상 피를 나눈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탈북자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기준으로 시민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탈북자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분석결과는 탈북자 문제는 혈연에 기반한 민족적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갖기는 어렵고, 대신 시민적 가치를 중시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기를 때 탈북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국가소속감과 국가자긍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민족소속감과 민족자긍심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탈북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비한국인이라는 배타적 기제가 작동하고, 민족적으로는 같은 동포라는 포용적 기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비한국의 경계가 강조될수록 탈북자 친근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경'이나 '국적'의 문제가 개입되었을 때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은 한국인 내에서는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이주민이나 탈북자 등의 '외부자'를 향해서는 배타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이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상학(2002). “소수자(Minority)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1998).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탈북자관 조사.” 『전략논총』. 제10집.
- 권수현(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제20권. 제2호.
- 김현임(2008). “북한출신 이주민(새터민)의 법적 지위와 문화 정체성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설동훈(2006). “국민 민족 인증: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변화와 통합』. 서울: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 송영호(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정진경(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 제11집.
- 윤상우·김상돈(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연구』. 제36권. 제1호.
- 윤인진(2009). 『북한이주민』. 파주: 집문당.
-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파주: 이담북스.
- 이내영(2011).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명진·최유정·최셋별(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11권. 제1호.
- 이신화(2010). “동북아 주요 국가의 탈북자 정책: 재외 탈북자문제와 대량 탈북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3권. 제3호.

- 장승진(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제3호.
- 전우택·윤덕용·민성길(2000). “탈북자들과 보호 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통일연구』. 제4권. 제1호.
- 정기선(1998).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2집.
- 정기선·박성일(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국민의식.”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 ARI-IOM 공동학술회의의 발표문.
- 정기선·이선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제1호.
- 정병호 외(2006).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출판부.
- 정한울·정원칠(2011).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최대석, 조영주(2008).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제33권. 제2호.
- 최현(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 Arts, Wil and Halman, Loek(2006). “National Identity in Europe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Vol. 35. No. 4, Winter, pp. 63-93
- Bleiker, Roland(2004). “Identity. Difference. and the dilemmas of inter-Korean relations : Insights from northern defectors and the German precedents.” *Asian Perspective*. Vol. 28. No. 2.
- Brubaker, Rogers(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nder, Charles R. and Yung-mei Tasi(2010). “Social factors influencing immigration attitud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 General Soci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38.
- Chung, Byung-Ho(2009). "Between Defector and Migrant: Identities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Vol. 32.
- Chung, Kiseon and Choe, Hyun(2008). "South Korean National Pride: Determinants, Changes, and Suggestions." *Asian Perspective*. Vol. 32. No. 1, pp. 99-127
- Citrin, Jack, Donald P. Green, Muste, Christopher and Wong, Cara(1997).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reform: The role of economic motiva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59. No. 3.
- Facchini, Giovanni and Mayda, Anna Maria(2006).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Welfare-State Determinants Across Countries." Center for Research and Analysis of Migration. Discussion Paper Series CDP. No. 04/06.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eds.)(2006). *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Washington D.C.: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Hansen, Holley E. and Helsi, Vicki L.(2009). "National Identity: Civic, Ethnic, Hybrid, and Atomized Individuals." *EUROPE-ASIA STUDIES*. Vol. 61. No. 1, pp. 1-28.
- Heath, Anthony F. and Tilley, James R.(2005). "British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ies*. Vol. 7. No. 2.
- Kunovich, Robert M.(2009).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4, pp. 573-593.
- Jones, F. L. and Smith, Philip(2001). "Individual and Soci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7. No. 2, pp. 103-118
- Hjern, Mikael(1998).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a Sociologica*. Vol. 41. No. 4.
- Ko, Sung Ho, Chung, Kiseon and Oh, Yoo-seok(2004). "North Korean Defectors: Their Life and Well-Being After Defection." *Asian Perspective*. Vol. 28. No. 2..
- Scheve, Kenneth F. and Slaughter, Matthew J.(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Vol. 83. No. 1
- Theiss-Morse, Elizabeth(2009). *Who Counts as an Americ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ggins, James A. et al(1994). *Social Psychology*. 5th. New York: McGraw-Hill. Inc.

| 논문투고일 : 2012년 11월 15일 |

| 논문심사일 : 2012년 11월 21일 |

|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0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3 (2012)

**A Study on the Attitude of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e-Lee Sohn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

Nae-Young Lee

(Dept. of Political Science, Korea Univ.)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uth Korean view of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the 2010 Survey on National Identity in South Korea.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economic interests were identified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National identity: The attitude of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with regard to conditions of nationhood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ethnic factors which is concerned with birthplace, long-term residence, and descent but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civil factors which place an emphasis on nationality, the Korean language, law abidance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a sense of national belonging and national pride, but positively influenced by a sense of ethnic belonging and

ethnic prid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 deeper connection was shown when there was greater advocacy for the political and social rights of migrants who have gained the Korean citizenship. This implies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 factor unrelated to ethnicity, is more relevant in shaping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conomic Interests, Attitude